

대중교육 시대에 Jagiellonian 대학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

Aleksander Koj 폴란드 Jagiellonian대 총장

요 약

오늘날의 국립 대학들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국가예산 기구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주된 사명이 연구와 교육에 있음은 분명하나 그들은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도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대학들은 특수한 연구결과와 교육 서비스를 사회에 판매하는 기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폴란드의 법에 따르면 대학 내에서의 일상적 학업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수업료는 교외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수업료를 지불하는 학생의 수를 증가시켜 추가자원을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부대시설의 확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1364년에 설립되어 1400년에 확장된 Jagiellonian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 중 하나이며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이다. 2만 6천 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인문학과 과학을 전공하고 있다. 본 대학의 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 서비스의 확충, 학제적 전문과정의 설치, 600명 이상의 우수한 교원을 바탕으로 한 박사과정, 대학원과정 및

국제적 연구의 확대

- 교육의 질 향상과 모든 졸업증서의 공신력 유지
-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 캠퍼스의 건설
-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 유럽적 관점에서 대학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적 유산을 최대한 활용

전 세계의 대학들이 대학의 임무와 교수법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수백 년간 유럽의 대학들은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로 여겨져 왔다. 폴란드에서 자유노조운동(solidarity movement)과 공산 체제하 계엄시절에도 볼 수 있었듯이,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치기구로서의 대학이 가지는 주된 임무는 지식의 습득과 보급, 즉 연구와 교육이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존중하며, 폴란드의 법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과 교수, 혹은 교원과 직원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국립대학은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의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역공동체에 의해 지원받는 예산기구이다. 한편 시장경제체제하의 대학들은 특수한 연구결과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상

※ 이 글은 '98년 9월, 성균관대학교 개교 600주년 기념 '세계 총장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업화된 사회에서도 대학은 여전히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의 유럽 대학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전통적인 대학의 임무가 대중교육에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18~24세 연령층의 30% 이상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게다가 졸업 후의 재교육이나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명의 교수와 소수의 학생 간에 수동적 지식 전달이 일어나는 고전적인 교수법에서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형식의 강의로 전환되는 급격한 변화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7년간 학생의 수는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아직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90년만 해도 대학 졸업자는 폴란드 인구의 7%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폴란드의 고등교육체제는 여전히 엄격한 편이다. 고교 졸업생들은 경쟁적인 입학시험을 거쳐 5년간 공부해야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야 3년 과정의 학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은 중앙고등교육협의회가 작성한 90여 개의 분야를 벗어날 수 없다.

폴란드의 신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국립대학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의 모든 정규과정이 무료로 행해진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국립대학들은 주말, 저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수과정에 대해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교수 형태를 통합하는 것은 금지되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더구나 특수과정 이수 후 수여되는 졸업장은 대부분의 경우 적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의 대접을 받고 있다.

폴란드의 국립대학들은 특별한 공식에 의해 예산을 배분 받는데, 여기에는 교원의 자질과 학생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산 배정상의 투명한 원칙을 보여

주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매년 대학들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 받기 위해 학생 정원을 증가시키려는 경쟁을 야기한다. 대학생 수의 현저한 증가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가용 재원의 총량이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의 0.8%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평균 수혜액은 크게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의 수를 늘림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것은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물리, 화학, 분자생물학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과학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에 사립 대학들이 등장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주로 경영학이나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수는 130개를 상회한다. 이러한 학교들은 매년 천 불에서 삼천 불에 달하는 높은 학비를 징수하고 학부 수준에서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빨리 졸업장을 얻기 원하는 학생들을 놓고 국립대학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에 따라 전반적인 실업률이 10~15%인 반면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대학 졸업장의 시장가치는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폴란드에서는 대학교육의 질과 졸업생의 질이 아직도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야 전국 대학 학장회



의에 의해 특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법안과 전국적인 양질의 평가 기준을 확립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미 고등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Jagiellonian 대학의 현황

1364년에 설립되어 1400년에 확장된 Jagiellonian 대학(이하 JU)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교가 위치한 Krakow는 11개의 고등교육기관과 9만여 명의 학생을 보유한 폴란드 제2의 교육중심지이다. JU는 2만 6천여 명의 학생과 60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지니고 이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JU가 1993년 의회의 특별법에 의해 재통합된 의학부를 갖춘 폴란드 유일의 대학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현재 JU에는 11개의 학부와 소수의 학제적 연구체가 있다. 여기에는 법, 행정, 역사, 철학, 언어, 경영 및 사회 커뮤니케이션, 의학, 약

학, 그리고 건강보호학 등이 포함된다. JU는 7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폴란드 동남부 Malopolska 지역의 유일한 전통 대학이다.

Krakow에는 세 개의 기술학교와 세 개의 예술학교, 그리고 네 개의 기타 분야 학교가 있다. 그 중 일부 학교는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에서 JU와 학생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JU의 사명은 이러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

는 것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Czeslaw Milosz와 Wislawa Szymborska와 같이 Krakow에 거주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자주 연사로 초청된다. 대학 박물관은 코페르니쿠스가 재학하던 시기(1491~1494)의 물품들을 포함하여 진귀한 과학기구들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현재 확장공사중이며 희귀 도서를 보유하고 국립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JU의 연구 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으며, 논문인용 건수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폴란드 최고의 수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U 교원들의 보수는 폴란드의 대학평균치보다 낮은 형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예산배분방식에 기인하며, 다른 대학들의 경우(13:1)보다 낮은 학생 대 교수 비율(7:1)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게다가 등록금 납입 학생의 비율은 다른 12개 대학의 평균치(45%)보다 낮은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교원들의 엘리트 의식과 같은 정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 건물들이 대부분 노화하여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JU의 연구·교육 측면에서의 발전 전망

현재 대부분의 교수들이 시장경제의 압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피하면서도 학생수를 가급적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선정된 분야에서 학부 연구를 발전시킴
- 최고 수준의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홍보함
- 새로운 전공 분야의 설치와 확장: 환경보호학(1994), 생물공학(1995), 경영학, 언론학(1996), 건강보호학(1997) 등



- 교육 목표의 일대 전환: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전통적 강의를 세미나로 대체함
- 다수 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확대: 예산지원 공식에 의하면 1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5명의 일반학생에 상응하므로,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특히 바람직함. 더구나 박사과정 학생은 연구 및 교육에 도움이 되며,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머지않아 박사과정 학생들이 JU 전체 학생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참신한 교수법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수의 승진심사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는 학장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의 국제화가 지연되고 있다.

- 학비를 전액 부담하려는 외국인 지원자가 적다.
- 외국인(일반적으로 영어 사용자)을 위한 강의 준비는 교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충분히 보상되지도 않는다.
- 학점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폴란드와 여타 유럽 국가들간 졸업장의 공신력에 차이가 있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의학과 자연과학, 특히 생명공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반도체공학 등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JU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접목시키는 Krakow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최근 설립된 특별경제구역과 Motorola사의 전략적 투자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이 단지는 장래 자연과학 캠퍼스가 들어설 Krakow 남부에 조성될 예정이고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단지가 폴란드의 중점 국책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완공까지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은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도 전하고 있다. Krakow는 Avignon, Bergen, Bologna, Bruxelles, Helsinki, Prague, Reykjavik과

Santiago de Compostela와 더불어 2000년 기념 유럽 문화의 중심도시로 추천된 바 있다. 해마다 다수의 해외관광객을 비롯,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이 도시에서 JU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Krakow에서는 매년 음악제와 영화제가 개최되며, 특히 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실내악 공연은 고정적인 문화행사이다.

한편 JU는 전 세계의 대학들과 70여 건의 상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등 오랜 국제 협력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어와 문화를 강의하는 여름학교는 매년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 호텔과 회의 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Krakow에서는 거의 매주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JU는 이런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에 관한 교육과정은 부진적하고, 유럽학 강좌도 불과 4년 전에 개설되었을 따름이다. 유럽연합에의 가입은 여러 가지의 법적 조율을 필요로 하며, 법학부의 활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럽 언어의 교육은 대중 교육과 교육서비스의 상업화, 시장경제의 압력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경영과 정책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는 난세에도 변해서는 안 될 듯하다.

JU의 경우 다음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교육 서비스의 확충, 학제적 전문과정의 설치, 600명 이상의 우수한 교원을 바탕으로 한 박사과정, 대학원과정 및 국제적 연구의 확대
- 교육의 질 향상과 모든 졸업증서의 공신력 유지
-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 캠퍼스의 건설
-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 유럽적 관점에서 대학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적 유산을 최대한 활용 **필독**

※ 이 글의 일부는 1998년 4월 3~5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Charles 대학의 6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